

‘서민의 발’ 광주 시내버스 파업...등교·출근길 ‘발 동동’

市 “운행률 80% 이상 유지” 불구
일부 노선 미운행...배차 간격 ↑
택시 ‘하늘의 별’...지하철 ‘무용’
장기화면 혼란·피해 가중 불가피
시의회 “市, 중재자 역할 수행을”

“빨리 나오거나 택시·지하철을 타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 세금으로 굴러가는 버스인데 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나요.”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재개한 9일 일부 노선이 미운행되고 배차 간격이 커지는 등 차질이 빚어지면서 등교·출근길 곳곳에서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광주시의 비상수송대책으로 시내버스 운행률이 종일 80% 이상을 유지해 우려했던 교통 대란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40분께 동구 남광주역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20여명의 학생·직장인 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은 차분한 기색을 보였지만 일부는 “이미 왔어야 할 버스가 도통 오지 않는다”고 도로를 살폈다.

동구 주민 김정태(74)씨는 “평소 봉선27 버스는 5-10분이면 왔는데 지난주 파업 때부터 기다리는 시간이 20분을 넘어갔다”며 “병원 예약에



버스는 언제 오나...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재개된 9일 오전 파업 안내문이 부착된 동구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맞춰 서둘러 나왔는데도 늦게 생겼다”고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정류장 전광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는 도착 예정 시간이 달라 혼란을 빚기도 했다. 직장인 이정호(27·여)씨는 “1-2분도 아니

고 10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빨리 온다는 걸 믿고 버스를 기다릴지, 지금이라도 택시를 타야 할지 고민”이라며 “파업 때문에 지각할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은 목적지가

지 가질 않아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불멘소리로 적지 않았다.

고등학교생 김모(18)군은 “파업 소식에 버스가 평소보다 붐빌 것 같아 지하철을 찾아봤는데, 학교 앞은커녕 근처도 지나지 않는다”며 “택시 이

용객이 많아져서 그런지 평소보다 길도 막히는 것 같아 제 시간에 등교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연신 시간을 확인했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률과 근무 여건 개선을 놓고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이 지난 4월 3차 조정 회의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월 11년 만에 첫 파업에 나선 노조는 현충일 연휴 기간 투쟁을 멈추며 사측으로부터 연락이 오길 기다렸으나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 이날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임금 8.2%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제시안 변경은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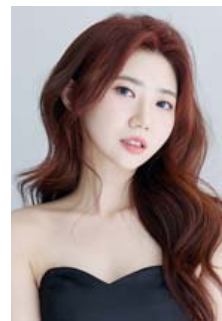
그러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며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지역과의 임금 차이, 개선되지 않는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내버스 사측은 당장 노조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이나 타 광역시의 임금 인상률 결정 사항을 보고 광주도 기준점을 정할 계획이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당사자는 물론,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준공영제 체제에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광주시는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면에 계속

알림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아카데미 6강



홍채린

소프라노 홍채린·테너 황태경 ‘작은음악회’
오늘 오후 6시 광주남구 임암동 ‘어반브룩’



황태경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전남 각 분야 리더들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와 네트워크 장을 제공하는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6강을 10일 개최합니다.

여섯 번째 프로그램은 소프라노 홍채린과 테너 황태경이 선사하는 작은 음악회 ‘여름밤

의 아리아’를 주제로 6월10일(화) 오후 6시 어반브룩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성악 선율로 채워질 이번 공연은 값어치는 여름밤,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클래식 아리아부터 친숙한 명곡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소프라노 홍채린 & 테너 황태경
- ▲‘여름밤의 아리아’
- ▲일 시=2025년 6월10일(화) 오후 6시
- ▲장 소=어반브룩(광주 남구 임암동)

김영록 지사 “내년 地選 3선 도전하겠다”

“전남도정 연속성 필요” 출마 의지
본보 인터뷰서 3선 입장 첫 공식화
다선 국회의원들과 당내 경선 예고

2028년 6·3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도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3선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시기가 이르다’며 지방선거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던 김 지사가 ‘3선 도전’ 입장을 처음으로 밝힘에 따라, 전남지사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선 국회의원 그들과의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9일 광주매일신문 창사 34주년 관련 인터뷰를 통해 “도정의 연속성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왔고 성과도 냈지만 앞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더 있다”며 “시작단



계에 있는 AI데이터센터, 전남권의 미래 설계, 바이오산업, 우주항공산업 등의 경우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도정 역량) 확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부권 역시 2028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와 COP33 유치 등 현안을 확실치 마무리해야 한다”며 “무안 국제공항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새 정부에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 전남도의 핵심 현안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거 반영된 것에 주목했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그동안 전남도가 앞장서 노력해왔고 새 정부도 재생에너지를 중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에너지기본소득, 에너지고속도로 등도 전남도에서 건의한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3선 전남지사가 되면)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기조에 잘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민선7·8기 동안) 기존 노하우도 있고, 통상 핵심 현안이 완결될 때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며 “벌여놓은 많은 현안을 제가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3선 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가 6·3 대선 직후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 입장을 밝힌 것은 대선 기간 동안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새 정부 ‘호남 총리론’이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도 “총리문제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지역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3선을 토대로 중앙 진출의 꿈과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일을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개호 국회의원(4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신정훈 국회의원(3선, 나주·화순), 주철현 국회의원(재선, 여수갑)이 전남지사 선거 출사표를 던졌으며, 서삼석 국회의원(3선, 영암·무안·신안)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